

성장 친화적 진보란 무엇인가?

발행일 | 2010년 3월 2일

장 소 | 참여연대 느티나무홀

제 작 |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

* 본 자료는 참여연대 시민경제교실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, 개인 학습용으로만 사용하시고, 재인용을 금지합니다. 자료이용에 대한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(02-723-5052)로 해 주십시오

성장 친화적 진보란 무엇인가?

홍종학 /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
I.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

- 시대착오적 경제정책과 세계화의 도전
- 80년대 후반까지 성장을 이끌었던 요소 투입형 발전국가 전략, 재벌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 등의 경제 전략이 한계에 도달
- 40년째 구사한 관치, 재벌, 건설에 투자하는 오래된 전략을 버리지 못함
- 세계화 이후 중국, 인도와 같은 저임금, 대규모 내수 시장을 가진 국가의 추격

II. 한국경제 위기의 성격

- 후발 중국과의 경쟁
- 중국이 산업기반을 잠식함에 따라 노동시장이 붕괴하고 양극화가 심화됨
- 중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등 일부산업 붕괴로 인해 노동 및 하위 산업 경쟁이 격화, 결과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수요가 위축되어 저성장이 지속됨.
- Trickle-down effect 사라짐.
- 저가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대적 공세에 중소기업 붕괴, 지방경제 쇠퇴
- 낮은 노조가입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중국과 임금을 균등화 하려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을 막지 못함, 그 결과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양산함.
-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실업자들이 영세자영업으로 몰려 경쟁이 강화, 수요는 위축됨.

○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한 소득불균형의 심화

- GDP 대비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 75년 약 75% 정도에서 현재 55%까지 줄어들음, GDP대비 가처분 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복지국가들 뿐, 미국은 70% 넘음
- 적은 가처분 소득 중 많은 부분을 사교육에 투자, 소비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짐

○ 중국의 도전에 대한 세계의 대응

-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맞서 각국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해 물가불안정시키고 통화팽창 부작용을 축소시킴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장기호황 지속.
-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자 소비 능력이 떨어진 저소득층(서브프라임)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함. 그러나 이렇게 무리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결국 유지 되지 못하고 금융위기로 무너짐.

III. Lisbon 전략과 Dubai 전략

○ 두바이 전략

- 규제완화로 외국인 자본 유치해서 그 돈으로 복지와 교육을 강화 하는 구조임. 아일랜드가 이와 비슷한 사례

○ 두바이 전략 장점

- 랜드 마크 건설의 이목집중효과가 존재, 대규모 투자금 유치가 가능
- 투자결과와 가시적 성과 제시 가능, 단기 경제성장의 확보
- 외자 유치에 따른 장기성장 기능, 금융 및 지역 허브로서의 기능

○ 두바이 전략 단점

- 개발에 대한 반감에 따른 국론 분열, 난개발에 대한 위험 상존
- 개발성공을 위한 유인책이 불가피 하며,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특혜 제공
- 개발거품이 붕괴, 대규모 고정자산-경제의 경직화, 유령도시화

○ 리스본 전략

-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EU 정상회의
-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전통적 유럽 복지모형을 유

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

○ 리스본 전략의 목표

-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역동적인 지식경제기반 구축
- 경쟁력과 혁신을 위한 구조개혁을 가속화 하고 정보화 사회와 R&D를 위해 더 나은 정책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
- 사람에 투자하고 사회적 소외를 퇴치하기 위해 유럽 사회모형을 현대화
-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건전한 경제전망과 성장가능성을 유지

○ 리스본 전략의 장점

- 저소득층의 직접적 수혜로 분배의 불평등 해소
-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음
- 경제의 유연성 확보, 미래의 경제 환경 변화에 신속적 대응 가능

○ 리스본 전략의 단점

- 일관된 전략개발의 어려움, 단기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, 국민적 공감대 형성 어려움
-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면 복지예산의 낭비, 인적자원 개발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.
- 전반적인 개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면 저성장 국면의 지속, 경제의 활력 상실

○ 해밀턴 프로젝트

- 기회와 변형,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, 리스본 전략의 미국 판
- 교육과 노동을 강조해 인적 자원에 투자 하는 것을 강조

○ 해밀턴 프로젝트 3대 원리

1. 폭넓은 국민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더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다.
2.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은 상호상승작용에 의해 강화 된다.
3.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.

IV. 인적자본정책현황

○ 한국의 상황

- 한국의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국민 5명 중 1명꼴임
- 덴마크와 스웨덴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80%에 달함.
- 특히, 중소기업은 대다수 근로자가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정부지원금 혜택은 매우 적게 받고, 대기업(특히 1,000인 이상)에 속해있는 근로자 수는 전체의 15.1%에 불과함에도 직업훈련 정부지원금은 전체의 63.7%의 혜택을 가져감. 비정규직은 소모됨.

○ 각국의 상황

-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영, 미 보수정책은 한계가 드러남, 두바이는 몰락 중
- 사람에 대한 투자 없는 물적 자본 투자의 위험성을 증명
- '성장 친화형 진보'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능 중

V. 성장친화형 진보

○ 진보는 성장과 경제의 역동성을 포용해야 한다.

- 성장 친화적 진보는 진보적 가치를 타협하거나, 맹탕인 중도로 가는 것이 아님
- 진보적인 가치와 경제성장을 구현하는 계획을 갖춘다는 것
- 진보적 가치와 경제성장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

○ 진보의 3대 가치

- 1. 노동자들에게 품위를 보장한다.
근로하면 보상한다는 사회적 약속과 기회, 책임의 정신
- 2. 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
경제적 이동성(economic mobility), 교육·저축·부의 창출·창업기회의 확충
- 3. 공정한 출발
공공정책이 제 역할을 해야 함, 보건과 교육은 국가의 역할

○ 진보의 3대가치를 고려해 국가의 경제전략 모색

- 역 산업정책,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시키는 것.
-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는 분야를 육성, 이전 노동자를 새롭게 육성된 분야로 마찰 없이 이동시킬 수 있는 인적 투자, 재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
- 사회적 보험의 확충
- 이직과 재취업을 위한 윈스톱 서비스,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이 필요



정부지원금 0%,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

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

회원가입 02-723-4251 www.peoplepower21.org

시민경제위원회 02-723-5056 blog.peoplepower21.org/economy